

롯데바이오로지스, 송도 제1공장 상량식

“2027년 상업생산… K-바이오 선도”

항체 의약품 생산… 내년 완공 목표
美 연계 ‘듀얼 사이트’ 전략 속도
박제임스 대표 “인류 건강증진 기여”

롯데바이오로지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메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량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돌입했다.

10일 롯데바이오로지스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건설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량식(上梁式)은 건축물의탄생을알리고 무사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다. 전통 건축물을 지을 때 지붕의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것에서 유래해 상량 일시와 기원을 담은 글인 상량문(上樑文)을 함께 적어 올린다.

이번 상량식은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지스 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건설 경과 보고, 축사,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문에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롯데그룹 미션을 담았다. 롯데그룹은 현재 ‘바이오앤웰니스’를 미래 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계열사 롯데바이오로지스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롯데바이오로지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해 총 36만 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착공하고 1년 6



지난 9일 롯데바이오로지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에서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지스 글로벌전략실장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왼쪽부터)과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지스 대표이사,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김진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지스.

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향후 각 12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3개의 시설이 세워진다.

제1공장의 경우 항체 의약품 생산 기지로 오는 2026년 완공, 2027년 상반기 내 상업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공정 유연성도 확보해 글로벌 잠재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지스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국내 송도 바이오캠퍼스 모두를 활용한 ‘듀얼 사이트 운영’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가 ‘항체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까지 원 스톱 CDMO 허브’ 역할을 하고 송도 바이오캠퍼

스는 ‘대량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올해부터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는 ADC 관련 설비 증설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주 활동도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첫 수주로는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ADC 임상시험용 후보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수주 실적을 쌓았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지스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은 롯데바이오로지스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여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유럽시장 피부질환 포트폴리오 확장

‘유럽피부과학회’ 참가 예정
옴리클로 임상 데이터 등 발표

셀트리온이 기존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등에서 피부질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17일~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유럽피부과학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회를 통해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학회 2일 차인 18일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서의 바이오시밀

러 활용과 이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럽 현지의 각 분야별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자로 참석해 ‘옴리클로’ 글로벌 임상 3상의 치료 후 추적 관찰까지 총 40주 임상 데이터 등을 발표한다.

옴리클로는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천식 등에 쓰이는 치료제다.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획득해 ‘퍼스트 무버’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CT-P55(성분명: 세쿠키누맵)’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도 포스터로

최초 공개된다. ‘CT-P55’는 코네틱스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CT-P55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약동학, 안전성 및 면역원성 등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25 유럽피부과학회에서 올해 유럽 출시가 예정된 퍼스트 무버 ‘옴리클로’의 연구 데이터를 비롯해 여러 피부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제품 경쟁력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유럽시장에서 치료제 영역을 확장해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모건스탠리 ESG 평가 ‘AAA’

국내 유일 글로벌 AAA그룹 포함

SK바이오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를 유지하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AAA 그룹에 포함됐다.

SK바이오팜은 인적자본 관리, 윤리 경영, 품질·안전관리 등 핵심 부문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주류업계 “한잔으로 마음을 나누세요”

증류식 소주 등 명절선물세트 선봬

추석을 앞두고 국내외 주류업계가 명절 선물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부터 위스키, 전통주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마련하고 한정판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내세워 명절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선보였다. 기존 ‘일품진로’와 ‘일품진로 오크43’에 더해 올해는 처음으로 ‘일품진로 오크25’를 추가해 선택 폭을 넓혔다. 회사 측은 100년 증류주 노하우를 담은 오크 숙성 소주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소주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상면주가는 자사 온라인몰 흡술닷컴을 통해 인기 전통주 선물세트 할인전을 진행한다. 복분자주, 홍시과실주, 느린마를 소주·약주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28%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보온보냉백, 쿠패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실속형 1만 원대부터 고급형 4만 원대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마련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글로벌 위스키 업체들도 선물세트 경쟁에 가세했다.



일품진로 선물세트

/하이트진로

산토리 글로벌 스피리츠는 산토리 위스키와 전용 하이볼잔으로 구성된 ‘산토리 하이볼잔’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캄파리코리아도 와일드 터키, 러셀 리저브, 더 글렌그란트 등 프리미엄 위스키 라인업을 전용 글라스와 함께 구성한 추석 한정 세트를 내놨다.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추석 스페셜 에디션’ 3종(12년·17년·21년)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기간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나면서 주류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며 “브랜드 개성과 차별화된 패키지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기념일·명절 소비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콜마, ‘아마존 뷰티 인 서울’ 공식 후원

윤상현 부회장, K-뷰티 주제 강연

한국콜마는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에 단독 제조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마존 행사는 화장품 제조사, 브랜드, 유통사, 인플루언서, 투자사 등 국내외 뷰티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콜마는 공식 후원사로서 K뷰티 고객사들과 동반성장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사는 물론 예비 고객사를 위한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부 진

단 기술을 선보여 글로벌 시장 공략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행사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비전’에서 화장품 제조기업 관점에서 본 K뷰티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한국콜마는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협력해 왔고 향후에도 K뷰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과 기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애경산업 ‘럽센트’ 스크럽 바디 워시 4종

애경산업은 퍼퓸 바디케어 브랜드 ‘럽센트’에서 ‘스크럽 바디 워시’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럽센트 스크럽 바디워시는 프랑스산 고급 향료를 활용해 글로벌 향료사와 공동 개발한 럽센트만의 시그니처 생화향을 담았다.

코코넛 껍질 가루 등 자연 유래 저지극 스크럽제를 함유해 피부 각질 관리가 가능하고 보습에 도움을 주는 칸스랜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라벤더오일 성분을 혼합한 3-오일 콤플렉스를 복합 처방했다.

럽센트 스크럽 바디워시는 피부 자극 테스트와 24시간 향 지속에 대한 인체적 용시험을 완료해 부드러운 피부를 완성해 주고 샤워 후에도 은은한 잔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더 핸드 크림 미스트 UV

아모레퍼시픽은 강력 복합성분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구현한 더 핸드 크림 미스트 UV(SPF 15+ 사진)’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새로운 유형의 손 관리 제품이다. 핸드 크림처럼 제형을 덜어 바르고 흡수시킬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분사해 사용하는 형태를 갖췄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지만 스크립의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향은 귤, 베르가못 등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계열에 파올리와 라벤더가 어우러진 허브 계열이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